

광주·전남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올들어 85건 작년보다 66% 늘어 평균연령 73세...월 44만원 수령

■주택연금 가입 건수 및 보증 금액액

구분	'07	'08	'09	'10	'11	'12.8월말	합계
건수	16	18	28	55	75	85	277
보증금액 (백만원)	5,343	9,384	14,477	29,813	38,591	38,807	136,415

주택가격은 1억710만원으로 월 평균 지급금은 44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규모별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0.3%,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6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74.9%, 전남 25.1%로 주로 광주지역에서 많이 가입했다. 전국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2007년 515건에서 2011년 2936건으로 크게 늘었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7세였으며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평균 103만원이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80.98건(78.1%)으로 대부

분을 차지해 비교적 서민층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연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돌아서면서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자료'를 발표한 국회 정부위원회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고령층의 생활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퇴직 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던 이모(65·광주시 북구)씨는 주택연금을 가입하기로 했다. 근무했던 아파트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일자리를 잃어온 이모씨는 결국엔 목돈까지 지출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서도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 지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 가입건수는 85건으로 지난해 8월말(51건)보다 66.6%(34건)나 급증했다. 해마다 40% 가량

늘어나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출시 첫 해인 2007년에는 가입건수가 16건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총 75건으로 5년 만에 3.7배나 증가했다. 주택연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고령층 사이에서 자녀에게 노후생활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보유와 상속 매력이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7년부터 올 8월말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277건이며, 총 보증금액은 136억4150만원이다. 광주·전남지역 가입자(7월말 기준) 평균 연령은 73.5세였고 평균 주

대우일렉 오스트리아 시장 재진입 철수 4년만에...현지업체와 주방가전 공급 계약

광주에 생산공장을 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오스트리아 시장에 재진입하며 본격적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2008년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철수한 지 4년 만이다. 대우일렉은 최근 독일지사를 통해 현지 가전수입업체 GGV와 전 제품, 세탁기 업체인 오이도라(EUDORA)와는 세탁기, 주방가전 전문 유통업체 뎀맥스(MoeMax)는 주방가전 공

급 계약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들은 광주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시장점유율 61%로 4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할인점 호퍼(Hofer)와도 제품 공급을 협의 중이다. 대우일렉은 지난 12~16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현지 최대 가전 전시회인 FUTURA에 참가해

양문형 냉장고, 벽걸이 드림세탁기, 멀티 오븐 등 신제품으로 현지 언론과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우전자 시절인 1992년부터 독일 법인을 통해 오스트리아 수출을 시작한 대우일렉은 2008년 해외사업장 재매치를 통해 법인을 지사화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수출을 중단했다. 대우일렉은 4년만에 오스트리아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계기로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 시장도 재진입을 타진하는 등 유럽 매출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25일부터 26일 오후까지 24시간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기본급 4만8000원 인상 ▲격려금 300%+3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다. 또 국가품질혁신상 추진 격려금 30만원, 신종 선박 성공 건조 격려금 40만원, 안전문화 정착금 10만원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리는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정년만 60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일관계 회복 경제인이 앞장서자”

조석래회장 '한일산업기술페어 2012' 연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인 조석래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일산업기술페어 2012’에서 연설을 통해 “경제인들이 역사와 영토 분

쟁을 초월해 서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만들고 양국간 이해와 화합을 증진시키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마저 주춤하면서 한일 양국의 경기도 둔화하고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나아가야

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행사가 부품 소재의 조달과 공급을 통해 양국의 경제를 이어주는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80.44 (-10.97)
▼ 코스닥지수	520.71 (-2.25)
▼ 금리 (국고채 3년)	2.79% (-0.01)
▲ 원·달러 환율	1,121.10원 (+1.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사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강술Set, 다담Set, 우전간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062)224-2002,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광주 롯데점: 062)221-1037, 광주 현대점: 062)510-7040
 목포 차생원: 061)281-1002, 서울 차생원: 02)730-2983, 부산 차생원: 051)256-7007-8,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동 763-4 T.222-2902,3973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신약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할수 있습니다.

■ 후불제투어 특징

- ① 후불제여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월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②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③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④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⑤ 만기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 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잔금적립후 계약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투어, 후불제 여행만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일반, 재택근무
- 지사모집: 소자는 무경험,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없음)

※ 고객의 희비는 공정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지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

외국인들 전남땅 가장 선호

소유면적 전국서 1위
10년 사이 33% 증가

외국인들은 전남 땅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남지역 땅값이 저렴함에도,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의 토지 소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2471만㎡로, 전 국토의 0.2%를 차지했다. 보유 금액으로 33조5018억원(공시지가 기준)에 이른다. 이 중 전남지역 토지는 4093필지 3799만2000㎡(2조2776억원)로, 전체의 16.9%를 차지해 전국에서 토지 소유면적이 가장 넓었다. 이는 지난해 말 4074필지 3824만4000㎡(2조2669억원)보다 25만2000㎡ 줄었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33.2%(948만㎡) 증가한 것이다. 여의도(290만㎡) 면적의 3.2배에 달한다.

■ 외국인의 전남지역 토지 소유 면적 (1은 분기, 단위:만㎡)

2002	2861
2003	2879
2004	2931
2005	3005
2006	3086
2007	3227
2008	3594
2009	3781
2010	3804
2011	3824
2012(1)	3799

2002년 1분기 2752만2000㎡였던 외국인 토지 소유면적은 2005년 말 3000만㎡(3005만8000㎡)를 넘어섰고, 2008년 말 3594만8000㎡, 2009년 말 3791만5829㎡, 지난해 말 3824만400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의 전남지역 토지 소유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면서 주거지와 농경지 구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것도 소유면적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광주지역 토지 소유면적은 지난 2분기 636필지 342만5000㎡(3848억원)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분기 326만6000㎡에서 2006년 말 345만㎡, 2007년 말 347만㎡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2008년 말 329만㎡로 크게 줄었다가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616필지 342만㎡(3837억원)를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